

# 대화 시퀀스와 텍스트의 구조분석\*

김휘택\*\*

## 【 차 례 】

- I. 서론
- II. 본론
  - 1. 시퀀스 이론
  - 2. 대화 시퀀스 형식과 역할
  - 3. 텍스트 분석
- III.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장 미셸 아당(Jean-Michel Adam)의 시퀀스 이론 중에서 대화 시퀀스의 텍스트 내 역할과 효과를 밝히는 데 있다. 대화 시퀀스는 대화를 일종의 시퀀스로 구조화 한 것이다. 이 시퀀스는 친교 시퀀스와 교류 시퀀스로 구성된다. 이 시퀀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하는 대화가 쉽게 구조화되지 않는다는 한계에서 고안되었다. 특히 대화가 텍스트 내에서 도입되었을 때, 독자에게 '행위' 자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대화 시퀀스만의 독특한 역할은 텍스트 언어학에서 대화 시퀀스의 중요성을 가늠케 한다. 본고는 대화 시퀀스의 특징과 텍스트 내 역할을 밝히기 위해, 실제 텍스트에 이를 적용하였다. 대화 시퀀스는 아직 많은 연구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대화 시퀀스와 다른 시퀀스들의 관계를 좀더 연구한다면, 시퀀스 이론의 외연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열쇠어 : 대화, 대화 시퀀스, 교류 시퀀스, 친교 시퀀스, 시퀀스 이론, 장-미셸 아당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8A01053851)

\*\* 중앙대학교

## I. 서론

텍스트는 발화행위의 결과물인 발화체(énoncé)이다. 발화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주체의 목소리, 발화 상황, 대화 상대자의 반응 등을 화용론이나 발화 언어학에서 연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발화 외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도, 발화체 자체의 내용이 가지는 혼질성(hétérogénéité)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텍스트를 연구할 때,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각기 다른 분야를 지목할 수 있다. 텍스트 언어학(linguistique textuelle)은 문장 단위를 중심으로 텍스트 구조에 관심을 가졌다. 기호학은 텍스트가 전하는 의미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왔다. 텍스트 언어학은 문장 단위의 한계 때문에 텍스트 구조에 대한 명확한 분석 모델을 내놓지 못했다. 분석 모델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은 분석 모델을 통해 텍스트 의미를 정확히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기호학은 언어의 의미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의미 단위를 통해 텍스트를 구조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텍스트 언어학과 기호학이 겪은 분석의 한계는 언어학자들에게 분석 방향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일군의 학자들은 텍스트 분석 단위의 텍스트 언어학의 문장을 중심으로 한 형태 지향과 기호학의 의미 지향을 절충할 수 있는 텍스트 분석 단위를 고안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본고에서 중심으로 삼을 장-미셸 아당(Jean-Michel Adam)은 그러한 언어학자들 중 하나였다. 아당은 기호학과 아나그램, 텍스트 언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지금의 시퀀스 이론을 제시한다. 그의 초기 저서 *Linguistique et discours littéraire*의 첫 장이 “기호(Le signe)”로 시작한다는 것이 이런 그의 연구 행보를 증명해준다. 1988년 잡지 *Pratiques* 58호는 “텍스트의 조직(L'organisation des textes)”이라는 표제 하에, 텍스트 구조와 그 구조를 구성하는데 쓰이는 텍스트 분석 단위들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아당은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만의 텍스트 분석 단위들을 고안해내려고 노력한다. 그 결실이 시퀀스(séquences) 단위를 통한 텍스트 분석이다.

본고는 시퀀스 이론에서 제시하는 시퀀스들 중 하나인 대화 시퀀스(séquence dialogale)를, 텍스트 내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대화 시퀀스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화를 시퀀스로 포착한 것이다. 대화는 ‘언어행위(acte de langage)’, ‘발화행위(énonciation)’라는 측면에서 언어학의 중심이 되는 연구대상이다. 아당은 대화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고안한 것이 아니라, 그간의 대화 연구 중 텍스트 구조 분석에 필요한 부분을 추려 시퀀스로 구성하였다.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혼질적(hétérogène)”<sup>1)</sup>이다. 텍스트 전체를 대략 이야기, 논증, 설명 등으로 규정할 수는 있지만,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텍스트는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대화도 그 요소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일상의 대화와 텍스트 내의 대화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대화가 텍스트에 등장하면, 대화가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특징뿐만 아니라 그 대화가 텍스트의 다른 부분들과 갖는 관계도 연구해야 한다. 대화 시퀀스는 이런 텍스트 분석의 요구에 의해 구성된 구조체이다. 본고에서 우리는 대화 시퀀스에 대해 알아보고, 이 시퀀스가 텍스트 실제 분석에 사용되는 모습을 제시하려고 한다. 우선 논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퀀스 이론을 살펴보자.

## II. 본론

### 1. 시퀀스 이론

시퀀스 이론은 텍스트 분석에서 문장을 분석의 기본단위로 사용하는

---

1) J.-M. Adam, *Les textes: types et prototypes*, Paris, Armand Colin, 2009. p.5.

데서 오는 한계로 인해 고안되었다. 문장은 랑그의 최상위 단위이다.<sup>2)</sup> 발화행위의 결과인 발화체(énoncé) 역시 이 문장을 기본으로 형성된다.<sup>3)</sup> 문장의 한계는 언어학이 고려해야 하는 형태적인 부분, 의미적인 부분 모두에서 나타난다.<sup>4)</sup> 문장의 선적 확대가 담화나 텍스트가 될 수 없다는 경험적 결과와 텍스트 내 문장의미의 총합이 텍스트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귀결은 이를 증명한다. 텍스트 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형태를 중시했던 텍스트 언어학과 의미를 중시했던 텍스트 기호학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당과 일군의 학자들은 텍스트 구조 분석을 통해 텍스트 의미를 정확히 포착해낼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잡지 *Pratiques*의 특집호들과 일련의 논문들은 이에 대한 그들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sup>5)</sup> 아당은 그 노력의 결과로 시퀀스

2) 에밀 벤베니스트(Emile Benveniste)가 제시한 문장의 위상은 언어학에서 가장 통용되는 생각 중 하나이다. 벤베니스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랑그의 기호 체계에서 구성소와 통합소 사이를 구분하는 범위는 어떠한가? 이 범위는 두 한계 사이에서 작용한다. 상위 한계는 문장에 의해 경계 지어지는데, 문장은 구성성분들은 가지지만, 앞으로 보겠지만, 문장이 다른 단위들과 통합해서 상위 단위를 이룰 수는 없다.” E.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 Paris, Gallimard, 1966, p.125.

3) 벤베니스트는 문장을 통해 랑그의 경계를 넘어선다고 생각한다. “문장과 더불어 한 경계를 넘어선 셈이 되고, 우리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Ibid.*, p.128. 그 새로운 영역은 담화의 세계이다. “문장은 끝없이 창출되고 무한히 다양하며, 활동하는 언어행위의 삶 자체다. 이로써 우리는 문장과 더불어 기호체계로서 랑그의 영역을 떠나 또 다른 세계인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언어의 세계-이는 담화(discours)로 표현된다-에 들어서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Ibid.*, pp.129-130. 벤베니스트는 문장을 담화의 단위라고 정의한다. “문장은 분명 담화에 속한다. 이 점에 의해서 문장이 정의 될 수도 있다. 문장은 담화의 단위라는 것이 그것이다.” *Ibid.*, 130.

4) 샤롤은 언어행위의 충위를 구축할 때, 문장의 위상이 “불안정(instable)”하다고 단언한다. “문장으로 조직되는 통사적 조합은 구조적으로 완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문법적 범주들의 배열을 규정하는 규칙들은 문장으로 형성된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질 뿐이다. 이러한 규칙들의 영역을 넘어서면, 우리는 담화를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문장 규칙으로는 담화를 다룰 수 없다.” M. Charolles, “Les plans d'organisation du discours et leurs interactions”, in *Parcours linguistique de discours spécialisés*, Ed. S. Moirandl, Berne, Peter lang, 1994, p.301.

5) 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http://www.pratiques-cresef.com>을 참조할 것. 이 홈페이지에 서는 잡지의 창간호부터 현재까지의 표제와 논문 목록이 실려 있다. 일부 논문의

이론을 제안한다. 이 이론은 분석의 최소 단위와 텍스트 전체 사이에 형태적으로 정확히 규정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단위를 설정한다. 그 중간 단위의 설정으로, 형태적으로는 텍스트가 문장의 확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일관된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의미적으로는, 시퀀스를 기존의 텍스트 연구들을 종합한 다섯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텍스트의 구조가 언어적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효과를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아당의 시퀀스 이론을 구조적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 1) 미시구성단계(Micro niveau de composition) - 발화문과 시퀀스

아당은 시퀀스가 발화문(propositions énoncées)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발화문이란 분석의 최소 단위이다. 발화문은 문장과 개념이 다르다. 문장이 완벽한 체계를 갖춘 이상적인 구조인 반면, 발화문은 실제 발화행위의 결과물이다. 발화문은 문장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다음 예를 보자.

(1)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2) 오는 24 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3)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의·정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 집단휴진 철회될 듯」, 2014.03.17.)

이 신문 기사 발화문은 한 문장이지만 세 개의 발화문((1), (2), (3))이 도출된다. 발화문은 형태적 완결성 보다는 의미적 완결성을 중시한다. 발화문 (1)은 의미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했다”라는 완결성을 가지고, 상위 단위인 시퀀스 일부가 된다. (2)와 (3) 역시 (1)과 같이 의미적 완결성을 가지기 때문에 발화문으로 포착될 수 있다. 발화문은 이상적인 체계가 아니라 상위 단계를 향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sup>6)</sup> 아당은 발화문이 시퀀스에 이르기

---

원문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까지의 과정을 ‘미시구성단계’로 규정하면서, 다음 표로 이를 제시하였다.

미시구성단계 (TEXTURE)	
a. 단순 페리어드	발화문들로 구성된 단순 페리어드 (유형화되지 않거나 약한)
b. 유형(전형)화 된 페리어드와 시퀀스	모둠 1 : 발화문들로 구성된 유형화된 페리어드 모둠 2 : 발화문들로 구성된 시퀀스 (이야기, 기술, 논증, 설명, 대화)

〈표1 : 미시구성단계7)〉

미시구성단계에서, 발화문들은 바로 위 상위 단계, 즉 시퀀스와 페리어드를 구성한다. 페리어드는 유형화 정도가 낮은 발화문의 모둠(empaquetage)이다. 페리어드는 접속사 연결이나, 리듬과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텍스트 내에서 정확한 형태와 의미를 갖는 시퀀스로 분류하기에는 부족하다. 반대로 시퀀스는 정형화된 발화문의 모둠이다. 아당이가 정의하는 시퀀스는 “텍스트의 단위로서 그 자체로 하나의 구조”<sup>8)</sup>이다. 이 구조는 두 가지 의미에서 다시 정의될 수 있다. 시퀀스는 계층을 가진 관계의 망에 속한다. 첫째, 시퀀스는 발화문으로 나눌 수 있고, 다른 시퀀스들과 결합하여 텍스트 전체를 이룬다. 다음으로, 시퀀스는 “자율적인 실체”이기도 하다. “시퀀스는 자신만의 내적 조직이 부여된다.”<sup>9)</sup> 따라서 시퀀스는 다른 시퀀스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자체로 하나의 텍스트가 될 수도 있다. 시퀀스는 문장과 같이 대문자와 마침표라는 단일한 형태적인 특징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시퀀스는 일종의 의미 기준들도 가지고 있다. 그 기준은 다섯 가지이다. 이 기준들이 직접 시퀀스

6) 아당은 이를 발화문의 “역동성”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J.-M. Adam, *Linguistique textuelle: des genres de discours aux textes*, Paris, Nathan, 1999, p.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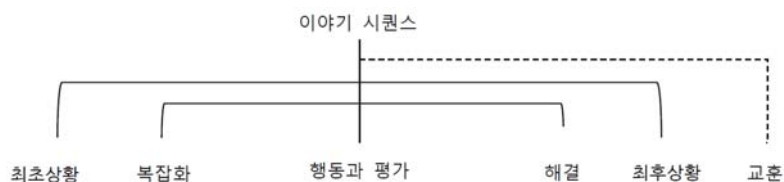
7) J.-M, Adam, "Types de textes ou genres de discours? Comment classer les textes qui disent de et comment faire?", *Langages*, Volume 35, n°141, 2001, p.18.

8) J.-M, Adam, *Les textes: types et prototypes*, Paris, Armand Colin, 2009, p.28.

9) *Ibid.*, p.28.

이론에서의 다섯 가지 시퀀스가 된다. <표1>에 제시된 이야기 시퀀스(séquence narrative), 기술 시퀀스(séquence descriptive), 논증 시퀀스(séquence argumentative), 설명 시퀀스(séquence explicative), 대화 시퀀스(séquence dialogale)가 그것들이다.

이 시퀀스들을 각기 설명하도록 하자. 이야기 시퀀스는 사건을 기술하는데 쓰인다. 이 시퀀스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최초·최후의 상황과 이야기가 진행되는 행동 혹은 평가의 부분, 최초·최후의 상황과 행동 부분을 인과관계로 이어주는 복잡화(complication)와 해결(résolution)이 그것들이다. 여기에 교훈(moral)부분이 추가될 수 있다. 교훈은 텍스트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는 할 수 없다. 도식은 다음과 같다.



〈도식1: 이야기 시퀀스〉<sup>10)</sup>

기술 시퀀스는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이다. 즉, 어떤 사물이나 상태에 대한 정의에 사용된다. 이 시퀀스의 발화문 배열은 주로 나열의 방식이 사용된다. 이때 발화문의 배열에 특정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논증 시퀀스는 수사학에서 발전시켜온 논증을 시퀀스 분석에 맞게 체계화 한 것이다. 논증 시퀀스는 어떤 사실에 대한 주장과 반박에 사용된다. 이야기가 행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이 시퀀스는 논증 과정(démarches argumentatives)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퀀스의 시작은 전제

10) Ibid., p.57.

혹은 논증할 자료들이 위치한다. 다음 전제에 대한 뒷받침(étayage)과 논거가 뒤따른다. 이후 논증은 결론에 이른다. 논증 시퀀스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논증이 결론에 이르기 전에 예외 혹은 제한 사항을 든다는 것이다. 이는 일상의 논증들이 완전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예외는 결론의 결점을 인정함으로써 결론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논증 시퀀스의 일반적 도식은 다음과 같다.



〈도식2 : 논증 시퀀스〉<sup>11)</sup>

설명 시퀀스는 ‘왜?(Pourquoi?)’ 혹은 ‘어떻게?(Comment?)’라는 질문과 대답의 국면을 시퀀스화 한 것이다. 이 시퀀스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대화의 초기 상황과 질문과 대답의 국면, 마지막으로 평가와 결론이 그것들이다.

대화 시퀀스는 텍스트 내 대화 부분을 시퀀스로 포착한 것이다. 이 시퀀스는 대화의 시작과 종결에 위치하는 친교 시퀀스(séquence phatique)와 시퀀스의 중심에 자리 잡는 교류 시퀀스(séquence transactionnelle)로 구성된다. 이 시퀀스는 물론 일상적인 대화를 분석하는 데에도 사용하지만, 텍스트 내에 대화 부분이 출현할 때를 감안해서 유형화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대화 시퀀스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텍스트 분석에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발화문들이 시퀀스를 구성하는 단계까지가 미시구성단계이다. 이제 시퀀스들이 결합하여 텍스트 전체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 2) 거시구성단계(Macro niveau de composition) – 시퀀스들의 결합

시퀀스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되면서 텍스트 전체에 이른다. 실제로

11) *Ibid.*, p.108.



구조 분석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 시퀀스의 결합구조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 구조를 통해, 텍스트가 어떤 내용과 형태로 전개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 거시구성단계는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다.

거시구성단계
<p>A. 텍스트의 구성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화 장르의 지배를 받는지의 유무</li> <li>고착된 구성형태 (일정한 장르에 속하는)</li> <li>정형화 되지 않은 구성형태 (텍스트 형태가 유일한)</li> </ul> <p>B. 시퀀스 구성</p> <p>단계 1 : 시퀀스 구성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일 시퀀스 정렬 (매우 간단하고 드문 경우)</li> <li>복수 시퀀스 정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한 시퀀스들의 조합 (하나의 시퀀스 형태로 텍스트 구성: 드문 경우)</li> <li>여러 유형의 시퀀스들 조합 (여러 시퀀스들의 혼합: 대개의 경우)</li> </ul> </li> </ul> <p>단계 2 : 기본적인 시퀀스들의 정렬 (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렬 시퀀스 (시퀀스의 연속)</li> <li>교차 시퀀스 (시퀀스의 연속)</li> <li>삽입 시퀀스 (삽입/포용관계)</li> </ul> <p>단계 3 : 지배 종속관계 (전체적인 유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삽입/포용 관계에 있는 시퀀스들을 통한 (텍스트를 열고 닫는 시퀀스)</li> <li>요약하는 시퀀스의 배치를 통해 (텍스트를 요약하는 시퀀스)</li> </ul>

<표 2 : 거시구성단계<sup>12)</sup>>

<표2>에서 보듯이, 거시구성단계에서 처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장르의 문제다. 이 사회에는 이미 고착된 텍스트 형식이 존재한다. 법률 조항이나 행정문서와 같은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대부분의 텍스트는 이 전통 장르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정형화되지 않은 구성형식(Plans occasionnels)”을 가진다.<sup>13)</sup> 이런 형식의 텍스트의 구조화를 분석할 때는 세 단계를

12) J.-M, Adam, *op.cit.*, 2001, p.18.

13) "담화장르"가 극히 혼절적이라는 것은 이미 바흐친이 인간 언어행위의 특성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 특성은 다양한 유형학적 접근에 선험적인 경험적인 상태이다. 이 혼절성은 언어학이 무시할 수 없는 특성이며, 내가 보기에 화자들의 공동된 경험에 대해서 가능한 한 경제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을 설명하지 않고, 텍스트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하게 된다. 첫 단계는 텍스트가 단일한 시퀀스로 구성되었는지, 복수의 시퀀스로 구성되었는지 구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기초적인 시퀀스 배열을 염두에 두고 텍스트를 본다. 병렬(séquences coordonnées), 교차(séquences alternées), 삽입(séquences insérées)이 이 기초적인 배열들이다. 마지막 단계는 기초적인 시퀀스가 삽입 시퀀스일 때, 시퀀스들 간의 지배(dominante)와 피지배(dominée)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지배 시퀀스의 역할은 텍스트 전체의 유형화(typication globale), 즉, 텍스트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는 일이다. 피지배 시퀀스는 지배 시퀀스 전개의 일부분이 된다.

지배 시퀀스와 피지배 시퀀스의 배치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삽입 시퀀스 구조(séquence enchâssante)는 한 시퀀스가 텍스트의 주 구조가 되면, 피지배 시퀀스들이 삽입되는 형태이다. 주 구조를 맡은 시퀀스는 텍스트를 열고 닫으며, 피지배 시퀀스는 주 구조의 중간에 위치한다. 다음 요약 시퀀스(séquence résumante) 구조는 한 시퀀스가 텍스트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텍스트 맨 앞이나 마지막에 위치하는 형태이다.

우리는 위에서 미시구성단계와 거시구성단계를 통해 텍스트 구조화의 방식을 보았다. 본고의 목적이 대화 시퀀스가 텍스트 내에서 하는 역할과 그 분석 예를 보기 위한 것이니만큼, 우선 대화 시퀀스의 내용과 구성형식에 대해 알아보자.

## 2. 대화 시퀀스 형식과 역할

### 1) 대화 시퀀스의 형식

대화를 형식화하는 일은 언어학의 오래된 숙원이다. 대화 시퀀스는 이 숙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아당은 대화 시퀀스를

---

이론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다음과 같은 정의의 기반 위에서 연구를 계속하려 한다. [한 텍스트Un texte는 복합적인 계층 구조이다. 이 계층 구조는 완벽한 생략된 형태이든 n개의 시퀀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 시퀀스들은 동일한 형태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일 수도 있다.]" *Ibid.*, p.20.

텍스트 내의 대화 부분을 간략히 구조화하고, 다른 시퀀스들과의 연결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하였다. 대화는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패턴은 가질 수 있지만, 이를 완벽하게 도식화 해내는 것은 어렵다. 케르브랏 오렉키오니(Catherine Kerbrat-Orecchioni)는 “구어 상호행위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문법은 경우에 따라 엄격할 수도 유연할 수도 있다”<sup>14)</sup>고 강조했다. 이는 대화를 규정하는 확실한 규칙들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시퀀스를 통한 대화의 구조화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화 자체만을 시퀀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퀀스가 텍스트 내의 다른 시퀀스들과 연결 관계에 있다는 관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연구에서 한 단계 나아가 대화 구조가 텍스트 내에서 하는 역할 역시 이 관점에서는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벤베니스트는 “시퀀스를 통해 대화가 그 규모와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sup>15)</sup>고 언급한 바 있다. 엠킨슨(J. Maxwell Atkinson)과 헤리티지(John Heritage) 역시 “대화를 문장이나 고립된 발화체들로 분석하기 보다는 시퀀스들과 한 시퀀스 내의 말의 교환이 그 분석 단위가 되어야 한다”<sup>16)</sup>고 언급하며, 시퀀스 분석에 긍정적 의견을 피력한다. 케르브랏 오렉키오니는 “대화 과정에서 생산된 발화체가 가지는 시퀀스 조직의 지배 규칙들을 밝혀야 한다”<sup>17)</sup>고 언급하면서, 대화 시퀀스에 대한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힌다. 다음 그의 언급을 보자.

몇몇 학자들은 거시-행위(macro-acte) 개념을 도입한다. 이는 문장보다

---

14) C. Kerbrat-Orecchioni, *Les interactions verbales*, tome 1, Paris, Armand Colin, 1990, p.200.

15) E.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Paris, Gallimard, 1974, p.88.

16) J. M. Atkinson et J. Heritage, *Structure of Social action, Studies in Conversation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et Paris, Edition de la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1984, p.5.

17) C. Kerbrat-Orecchioni, *op.cit.*, 1990, p.198.

상위 차원의 화용론적 단위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단위들은 "미시-행위 (micro-acte)를 통합하면서 생산된 단위들이다.<sup>18)</sup>

그의 이런 언급이 중요한 것은 대화로 구성된 시퀀스가 대화에서 주고받은 문장들 보다 높은 층위를 구성한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당은 대화 시퀀스에 대한 연구에서 대화 자체의 특성만으로 대화 내에 존재하는 두 시퀀스를 구분했다. 대화를 열고 닫는 “친교 시퀀스”와 실제 상호행위에 해당하는 “교류 시퀀스”<sup>19)</sup>가 그것들이다. 대화 안에서 분절적 특징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sup>20)</sup> 따라서 아당의 위와 같은 구분은 단순하지만 명확하다. ‘단순하지만 명확하다’라는 말은 아당이 대화 자체를 간략히 다루었다는 뜻은 아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친교와 교류 시퀀스의 구분은 명확하지만, 교류 시퀀스의 내용과 형식 규칙을 찾기는 어렵다. 그는 이 어려움을 다음과 같은 대화를 제시하면서 풀어가고자 한다.

A1: Vous avez l'heure ? -----] [a]  
 B1: Il est six heures. -----] [a'-b]-----]  
 A2: Merci. -----] [b]  
 <대화1: 두 발언이 하나의 모듬을 만드는 예<sup>21)</sup>>

아당은 <대화1>을 제시하면서 두 개의 발언이 포함된 한 번의 발언 교환이 하나의 모듬을 만드는 예를 제시한다. 위 대화는 시간을 물어보는

18) C. Kerbrat-Orecchioni, *Les actes de langage dans le discours*, Paris, Nathan, 2001, p.54.

19) J.-M. Adam, *op.cit.*, 2009, p.154.

20) 케르브랏-오렉키오니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하나의 동일한 상호 행위가 문제될 때, 우리는 변동이 가능하지만 단절이 없는 일군의 참가자들이, 변동이 가능하지만 단절이 없는 시공간적 범위 속에서, 변동이 가능하지만 단절이 없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C. Kerbrat-Orecchioni, *op.cit.*, 1990, p.216.

21) J.-M. Adam, *op.cit.*, 2009, p.157. A1: 몇 시예요? B1: 6시요. A2: 감사합니다.

것으로 시작하여(A1), 이에 대한 대답(B1), 대답에 대한 감사표시(A2)로 끝난다. 형태적으로 A1과 B1이 짝이 되고, B1과 A2가 짝을 이룬다. 여기서 B1은 첫 번째 짝에서는 대화를 닫고, 두 번째 짝에서는 대화를 열면서, 이중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간단히 대화가 두 개의 짝을 묶어서 구조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화 내용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다음 대화를 보자.

A1: Excusez-moi ----- [a]  
 A1: Vous avez l'heure ?----- [b-c]  
 B1: Bien sûr. ----- [b']  
 B1: Il est six heures ----- [c'-d]  
 A2: Merci. ----- [d']

〈대화2: 두 발언으로 하나의 모듈을 만들지 못하는 예<sup>22)</sup>〉

위 <대화2>에서 [a]는 친교 시퀀스이며 대화를 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발언에 대한 B의 대답은 긍정의 몸짓이나 표정 등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답 [a]가 생략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위 <대화1>의 분석과 같이 우리는 [b][b'], [c][c'], [d][d']의 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용상 살펴보면, [b]의 실제 짝은 [c']가 되기 때문에 대화내 발언들을 순서에 따라 두 개씩 짝을 짓는 것이 대화 시퀀스의 구조화에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당은 위 대화들을 확장해서 실제 대화와 가까운 예를 든다. 이를 통해 그는 친교와 교류 시퀀스의 분류가 대화를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22) *Ibid.*, p.157. A1: 실례합니다. A1: 시간 좀. B1: 물론이죠. B1: 6시입니다. A3: 감사합니다.

A1: Excusez-moi ----- [a]  
 A1: Vous avez l'heure ?----- [b]  
 B1: Vous n'avez pas de montre ?----- [a'c]  
 A2: Non. ----- [c']  
 B2: Il est six heures. ----- [b'-d]  
 A3: Merci. ----- [d']

〈대화3: 대화 시퀀스의 예23〉

위 대화에서 발언의 교환은 [a][a'], [b][b'], [c][c'], [d][d']의 짝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화2>에서와 마찬가지로 문답을 모듬으로 하는 분석은 내용과 형식상 이 대화 시퀀스에 맞지 않는다. 아당은 친교 시퀀스와 교류 시퀀스를 나눔으로써 교류 시퀀스라는 틀 안에서 대화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이론을 통해 위 <대화3>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도식3: 대화 시퀀스〉

위 <대화3>에는 친교 시퀀스가 없다. 다만 [a]가 내용상 이를 대신한다. 이 발언은 B가 받을 수 있는 시공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A의 의도가

23) *Ibid.*, p159. A1: 실례합니다. A1: 시간 좀. B1: 시계 없어요? A2: 없습니다. B2: 6시요. A3: 감사합니다.

옛보인다. A는 B의 대답을 듣기 전에 [b]를 발언한다. 이에 B는 [a'c]를 발언함으로써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다. 이 발언은 [a]에 발언을 닫으면서, 다음 대답 [c]를 유도한다. B는 [b'-d]를 발언하여 A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A는 [d']를 발언함으로써 대화가 끝난다. [b'-d]는 앞선 몇 시인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교환을 닫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감사의 발화를 이끌어 내는 이중의 역할을 한다. 마지막 감사의 발화는 일종의 친교 시퀀스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친교 시퀀스는 생략한 것으로 본다. 위 내용에 따라, <도식3>에서 [b]와 [b'-d]가 안은 교환(échange enchâssant)을 이루고, [a'c]와 [c']가 안긴 교환(échange enchâssé)을 이룬다. 이와 같이 교류 시퀀스 안에서도 대화들은 내용에 따라 층위를 이룬다. 이는 대화 순서에 따른 선형적인 분석이 실제로 대화분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화를 시퀀스로 분석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나면 고려해야 할 것은 다른 시퀀스들과의 관계이다. 대화 시퀀스는 자체로 친교 시퀀스와 교류 시퀀스를 가진다. 친교 시퀀스는 형식상·내용상 관습적이고 고정적이며,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반면 교류 시퀀스는 대화자들의 발언의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 시퀀스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분석 과정에서 발언을 발화문으로 분석하여, 아당이 제시한 시퀀스들로 구성해 본다면, 그 발언의 성격은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대화 시퀀스는 이에 따라 친교 시퀀스와 이야기, 논증, 설명, 기술 시퀀스를 교류 시퀀스로 가지는 상위 시퀀스가 된다. 이때, 대화 시퀀스는 텍스트 전체에 속하는 시퀀스이기 때문에, 전체와 하위 시퀀스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대화 자체가 매개라는 위치에 따른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서 우리는 대화 시퀀스가 수행하는 내용상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 2) 대화 시퀀스의 역할: 텍스트 내에서의 행위

텍스트의 구조 분석에서 다루는 대화는 대화 자체를 연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대화 시퀀스는 이야기, 논증, 설명, 기술 시퀀스들과 달리 재현의 산물이 아니라 대화라는 행동 자체를 그대로 텍스트 안에 옮겨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 대화 시퀀스는 텍스트 내의 ‘행위’로 규정된다. 케르브라트 오렉키오니는 이에 대해 “대화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단위들이 아니라 언어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다”<sup>24)</sup>고 언급했다. 텍스트에서 대화가 행위로 규정된다면, 대화에 동반하는 몸짓은 행위로서 발언과 같은 자격을 가지게 된다. 즉 행위가 말을 대신하면서 발화체의 자격을 가진다. 발언이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면, 대화 내의 몸짓들은 행위로서 발언의 자격을 가지며, 발언을 대신하고 말로 된 발화체의 자격으로 발언 교환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sup>25)</sup> 실제 대화 상황 속에서 대화자의 발언에 대화 상대자가 말 대신 표정이나 태도로 대답하거나, 대화자들이 말과 행동을 섞어서 의사표현 하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희곡에서는 지문에 연기자의 행동을 지시하여 대화자의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야기 시퀀스와 논증 시퀀스가 사건이나 대화자간의 설득을 기술한 것이라면, 대화 시퀀스는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말하는 ‘행위’ 자체를 텍스트에서 포착한 것이다. 이것이 대화 시퀀스와 다른 시퀀스들과의 차이점이며, 대화 시퀀스가 시퀀스로서 분명한 위상을 갖는 지점이다. 다른 시퀀스들은 세계에 대한 기술(이야기, 설명, 기술 시퀀스)과 타인에 대한 설득(논증시퀀스)이라는 대립으로 규정된다. 대화 시퀀스는 이 내용적 대립과는 상관이 없다. 대화 시퀀스는 친교 시퀀스로 외박을 표시하고, 내용은 교류 시퀀스에 의해 결정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류 시퀀스에는 이야기 시퀀스를 비롯한 다른 시퀀스들이 도입될 수 있다. 그만큼 대화 시퀀스의 내용은 가변적인 것이다. 대화 시퀀스가 행위로 규정되면서, 텍스트는 세계에 대한 기술, 논증의 기술, 행위에 대한 기술을 모두

24) C. Kerbrat-Orecchioni, *op.cit.*, 1990, p.211.

25) J. M. Adam, *op.cit.*, 1999, p.158.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대화 시퀀스의 역할은 이것만이 아니다. 다른 시퀀스에 대화 시퀀스가 행위로서 도입되면, 평범한 발화문으로 기술되는 것보다 그 시퀀스가 강한 인상과 의미 효과를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는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보자.

(1) 무더위는 8월 하순이 와도 식을 줄을 몰랐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날, (2) 나는 할 수 없이 산부인과 진찰을 받았다. (3) 벌써 두 달 넘게 달거리가 내비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진찰을 끝낸 의사가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5) 기쁠 것도 슬플 것도 없었다. (6) 내 뱃속에 있다고 상상되는 그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니라 조카 같다고 나는 담담히 느꼈다.

위 발췌문은 박범신의 『나마스테』<sup>26)</sup>의 일부분이다. 위 부분은 '나'의 임신 사실에 대한 것을 기술하고 있는 이야기 시퀀스이다. (1)은 최초의 상황이다. (3)은 복잡화이다. (2)와 (4)는 행동 및 평가에 해당하는데, (3)은 (1)과 (2), (4)를 인과 관계로 연결하고 있다. (6)은 해결 부분에 해당한다. 최후의 상황은 (5)이다. (6)은 (2), (4)를 (5)에 인과관계로 연결한다. 이때 (4)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습니다."라는 발화문은 대화를 직접 옮겨 놓았다. 이 부분이 주는 효과는 '나'가 가지는 충격을 보여준다. 그리고 의사의 "낭랑한 목소리"는 '나'의 담담함과 대조적으로 비춰진다. 텍스트에 대화부분이 도입되면, 텍스트의 내용 흐름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 대화 시퀀스가 텍스트의 내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화 시퀀스는 다른 시퀀스들 보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다. 만일 이러한 효과들이 실제 사례들을 통해 분석되고, 정확히 분류될 수 있다면, 이는 대화 시퀀스의 위상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26) 박범신, 『나마스테』, 한겨레신문사, 2005, 171쪽.

우리는 지금까지 시퀀스 이론과 대화 시퀀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은 이 대화 시퀀스를 이용하여 실제 텍스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3. 텍스트 분석

다음 텍스트는 기욤 뫼소의 『종이여자』<sup>27)</sup>의 일부분이다.

[1] (1) 말리부 콜로니를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톰의 집 앞에 멈춰 선 것은 오후 5시가 조금 넘는 시간이었다. 쓰레기 수거 작업을 맡은 인부는 존 브래디였다. (2) 그는 톰의 집 앞에 나와 있는 큼지막한 재활용 쓰레기통 하나를 들어 올리다가 그 안에서 새 책이나 다름없는 《천사들의 3 부작》 중 2 권을 발견했다. (3) 그는 일단 책을 따로 챙겨놓았다가 쓰레기 수거 작업이 끝난 다음 책 상태를 꼼꼼하게 살폈다. (4) 와! 특별 에디션으로 예쁘게 제작한 책이잖아! 판형도 큰데다 고딕폰트의 근사한 표지와 수채화 삽화까지 들어있네.

(5) 이미 1 권을 읽은 존의 아내는 2 권의 포켓판이 나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에게 책을 주면 몹시 좋아할 게 분명했다. 존 브래디가 책을 손에 들고 집으로 들어서자 아내 자넷이 생각대로 반색했다. (6) 당장 부엌 식탁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한 자넷은 너무 열중한 나머지 저녁 요리로 준비한 그라탕을 오븐에서 꺼내는 걸 깜빡했다. 존 브래디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7) 오늘밤에는 마누라 손 한번 잡아 보지 못한 채 적적하게 등을 돌리고 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8) 그는 아내 손에 책을 쥐어 주는 바람에 저녁도 굶고 아내와의 잠자리도 포기해야 하는 불행을 자초한 것이라 여기며 언짢은 기분으로 잠을 청했다. (9) 그는 아내 대신 모르페우스의 품에서 위안을 얻으며 서서히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모르페우스는 기분 좋은 꿈으로 그를 위로해주었다. 그가 열렬히 좋아하는 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에 진출해 뉴욕양키즈를 이기고 우승하는 꿈이었다.

---

27) 기욤 뫼소, 『종이여자』, 전미연 역, 밝은 세상, 2010, 206-207쪽.

[2] (1) 그러나 꿈결 속에서 한창 행복에 젖었던 그는 (2)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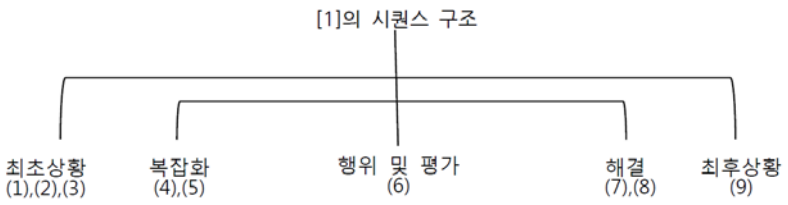
(3) “존!” 옆에 있던 아내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a) “어떻게, 뭐가?”(b) “책이 266 페이지에서 딱 끊겼어. 나머지는 다 백지뿐이란 말이야.”(c) “그게 내 책임은 아니잖아?”(d) “당신이 일부러 이런 책을 구해온 거 아니야?”(e) “말도 안 돼!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f) “어찌됐든 빨리 뒷애기를 마저 읽고 싶어.”(g) 존이 안경을 쓰고 알람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지금은 새벽 두 시야. 이 한밤중에 어디 가서 책을 구해오란 말이야?”(h) “〈마켓 24〉는 밤새도록 문을 열잖아.(i) 여보, 제발 새 책으로 한 권 사다 줘.(j) 2 권이 1 권보다 훨씬 재미있단 말이야.”(k) 존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l)

(4) 기쁠 때나 피로울 때나 함께하기로 언약하고, 결혼해 30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아니던가. 오늘밤은 피로운 날에 속했지만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5) 아직 잠이 덜 깬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운 존은 청바지와 두툼한 스웨터를 입고 차고로 내려왔다. (6) 퍼플 스트리트의 〈마켓 24〉 앞에 도착한 그는 손에 들고 온 파본을 길거리 휴지통으로 속으로 뱉어 집어던졌다. (7) 빌어먹을 책 같으니.

위 텍스트는 두 개의 이야기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다. 첫 이야기 시퀀스는 인부 '존' 아내에게 상태가 좋은 책을 가져다주어 아내가 책을 읽으면서 자신은 외롭게 잠이 든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 시퀀스에서 직접 대화 시퀀스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존의 독백이 말투 그대로 등장한다.<sup>28)</sup> 이 이야기 시퀀스 [1]의 최초 상황은 (1), (2), (3)이다. 이야기의 시작, 즉 복잡화는 (4), (5)이다. 이 두 발화문들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구성한다. 특히 (4)는 조의 독백 말투를 그대로 실음으로써 책이 상당히 좋은 상태라는 것과 이 책을 아내에게 가져다주겠다는 톰의 기대감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이야기 시퀀스의 인과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6)은 행위 부분으로 아내가 책을 좋아해서 열심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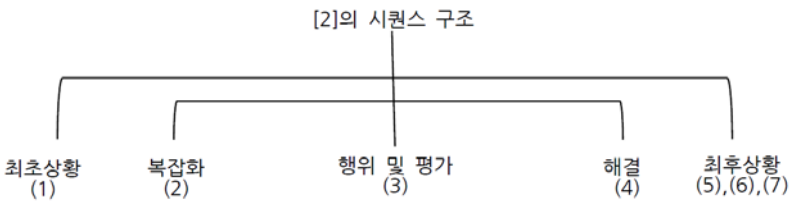
28) 여기서 화법의 문제는 따로 다루지 않겠다.

읽는다는 내용이다. (7), (8)은 존이 아내와 상관없이 잠을 자게 되는  
 최종 상태에 대한 개연성을 알려주는 이야기의 끝, 해결 부분이다. 최후의  
 상태 (9)는 존이 좋은 꿈을 꾸면서 잠이 드는 장면이다. 이를 다음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도식4: [1]의 시퀀스 구조〉

[2]도 역시 이야기 시퀀스이다. [2]는 [1]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1]의 최후 상황은 [2]의 최초 상황과 맞물린다. 최초의 상황은 (1)이다.  
 복잡화는 (2)이다.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존은 잠에서 깨고, 이는 행위  
 (3)으로 이어진다. 행위 (3)은 존과 아내의 말다툼으로 구성되어 있다.  
 (4)는 존이 책을 다시 사러 가게 된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해결  
 부분이다. (5), (6), (7)은 최후의 상태를 나타낸다. 마지막 (7)은 존의  
 독백인데, 이는 존의 말을 그대로 도입하여, 존의 실망감이 얼마나 깊은지  
 극적으로 표시해주고 있다. [2]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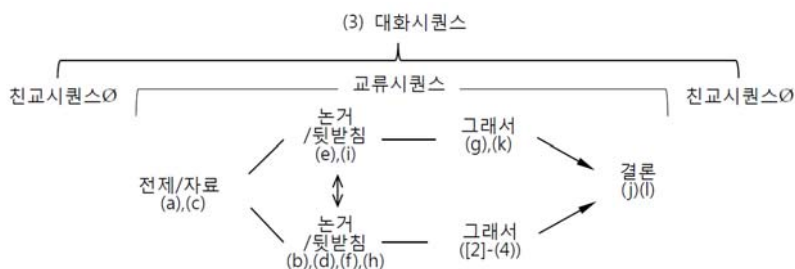


〈도식5: [2]의 시퀀스 구조〉

대화 시퀀스로 구성된 (3)은 본고의 주된 관심사인 만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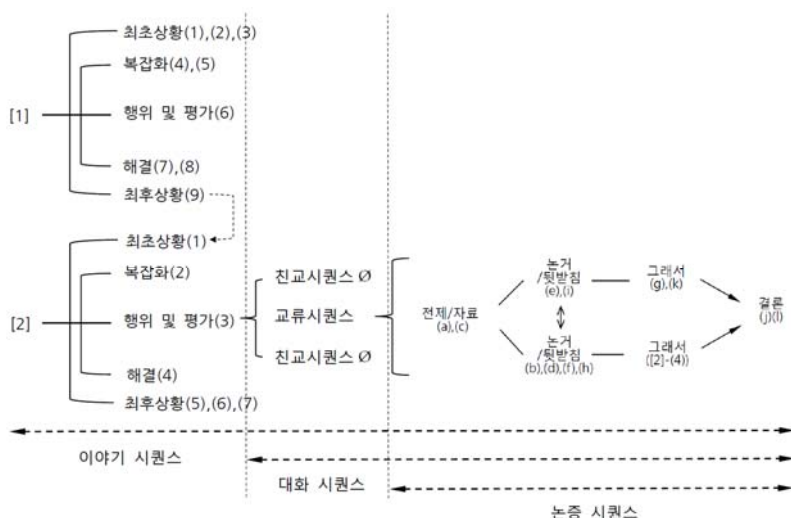
(3) “존!” 옆에 있던 아내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a)  
 “어떻게, 뭐가?”(b)  
 “책이 266 페이지에서 딱 끊겼어. 나머지는 다 백지뿐이란 말이야.”(c)  
 “그게 내 책임은 아니잖아?”(d)  
 “당신이 일부러 이런 책을 구해온 거 아니야?”(e)  
 “말도 안 돼!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f)  
 “어찌됐든 빨리 뒷애기를 마저 읽고 싶어.”(g) 존이 안경을 쓰고 알람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지금은 새벽 두 시야. 이 한밤중에 어디 가서 책을 구해오란 말이야?”(h)  
 “〈마켓 24〉는 밤새도록 문을 열잖아.(i) 여보, 제발 새 책으로 한 권 사다 줘.(j) 2 권이 1 권보다 훨씬 재미있단 말이야(k).”  
 존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l)

(3)에서 존과 아내는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일종의 논증 대결로 환원시켜볼 수 있다. 이 대화 시퀀스는 친교 시퀀스가 생략되어 있고, 교류 시퀀스에 논증 시퀀스가 도입된 형태이다. 아내의 논증의 자료는 (a), (c)에 해당한다. 이 논증을 통해서 아내가 얻고자 하는 결론은 (j)에서 드러난다. 책을 다시 사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g)와 (k)는 논증 시퀀스에서 ‘그래서’에 해당한다. (e)와 (i)는 아내가 제시하는 논거라고 할 수 있다. 존의 말들 (b), (d), (f), (h)는 아내의 말들에 대한 반대 논거이다. 마지막 (l) 존의 한숨은 아내가 제시하는 논증의 결론에 동의하는 존의 행동이다. 아내의 논거들은 논리적이지 않았다. 존은 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반발하지 못한 이유, 즉 책을 다시 사러 가게 된 이유를 [2]-(4)에서 제시하고 있다. (3)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식6: [2]-(3)의 시퀀스 구조〉

(3)을 대화 시퀀스로 제시한 효과는 명백하다. 대화 시퀀스를 통해 존과 자넷의 논증을 중개함으로써 주인공이 쓴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자넷이 이를 얼마나 읽고 싶어 했는지, 이 책의 파본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는지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화 시퀀스의 역할과 의미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우선 대화 시퀀스가 대화 속의 개별 발언으로 구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친교 시퀀스와 교류 시퀀스로 대화 시퀀스를 구분하여, 친교 시퀀스는 시퀀스의 외형을, 교류 시퀀스는 시퀀스의 내용을 담당하도록 구성하여, 대화 시퀀스의 형식적 위상과 텍스트의 층위 구분을 명확히 밝혔다. 위 예에서는, 대화 시퀀스는 이야기 시퀀스 전체에의 구성소로 참여하면서, 논증 시퀀스를 하위 시퀀스를 가지면서 그 매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내용상, 대화 시퀀스는 말하는 행위의 텍스트 내 도입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위 텍스트에서 보듯이, 대화 행위를 직접 텍스트에 도입함으로써 텍스트 전개가 더욱 극적으로 진행되며, 인물들의 감정이 가감 없이 전달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음 도식은 시퀀스 전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도식7: 텍스트 전체 시퀀스 구조〉

### III. 결론

시퀀스는 텍스트 구조분석을 위해 최적화된 분석 도구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퀀스는 이야기, 논증, 설명, 기술, 대화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의 조합은 텍스트 분석의 충위를 분명히 해주고, 텍스트 의미 전개의 흐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 중 대화 시퀀스는 그 역할이 다른 시퀀스들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우선, 대화 내 발언들을 다른 시퀀스들로 구성하면, 실제로 대화 자체의 역할은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본고는 그런 점에 착안하여, 대화 시퀀스가 텍스트의 구조 분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의미 포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본고에서 우리는 대화 시퀀스가 개별적인 대화 내 발언의 분석을 통해서 구조화되기 힘들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친교 시퀀스를 통해 대화의

외형을 규정하고, 교류 시퀀스를 통해 대화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화 시퀀스를 조직하고자 했다. 특히 교류 시퀀스에 다른 시퀀스들이 위치하면서, 대화 시퀀스가 텍스트 조직에서 텍스트 전체와 하위 시퀀스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화 시퀀스는 의미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화가 텍스트에 도입되는 것은 세계에 대한 기술이나 논증이 아닌, 말하는 '행위' 자체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도입은 위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텍스트 의미 전개를 보다 생생하게 기술하고, 인물의 감정과 생각을 독자에게 보다 뚜렷이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대화 시퀀스는 그간 그다지 연구되지 않았던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행위로서의 대화가 텍스트에서 가지는 영향은 지금 우리의 연구보다 다양하게 포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계속 연구하여, 대화 시퀀스가 다른 시퀀스들과 결합하는 양상을 유형별로 포착하는 일 역시 시퀀스 분석 이론의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박범신, 『나마스테』, 한겨레신문사, 2005.

기욤 뫼소, 『종이여자』, 전미연 역, 밝은세상, 2010.

Jean-Michel Adam, *Linguistique textuelle: des genres de discours aux textes*, Paris, Nathan, 1999.

\_\_\_\_\_, "Séquence", in *Dictionnaire d'analyse du discours*, Paris, Seuil, 2002.

\_\_\_\_\_, *Les textes: types et prototypes*. Paris, Armand Colin, 2009.

\_\_\_\_\_, "Types de textes ou genres de discours? Comment classer les textes qui disent de et comment faire?", *Langages*, Volume 35, n°141, 2001. pp.10-27.

J. Maxwell Atkinson, et John Heritage, *Structure of Social action, Studies in Conversation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et Paris, Edition de la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1984.

Emile Benveniste,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 Paris, Gallimard, 1966.

\_\_\_\_\_,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II*. Paris, Gallimard, 1974.

Michel Charolles, "Les plans d'organisation du discours et leurs interactions" *Parcours linguistique de discours spécialisés* Ed. S. Moirandl. Berne, Peter lang, 1994. pp. 301-14.

Oswald Ducrot, *Les mots du discours*. Paris, Editions de Minuit, 1980.

Catherine Kerbrat-Orecchioni, *Les interactions verbales*, tome 1. Paris, Armand Colin, 1990.

\_\_\_\_\_, "dialogue", in *Dictionnaire d'analyse du discours*. Paris, Seuil, 2002.

\_\_\_\_\_, *Les actes de langage dans le discours*. Paris, Nathan, 2001.

## Séquence dialogale et analyse structurale du texte

Kim, Hui-Teak

Cet article a pour but d'illustrer le rôle et les effets de la séquence dialogale dans le texte. Cette séquence est un résultat de la structuration du dialogue. Cette séquence est conçue à cause de la limite où des dialogues quotidiens ne peuvent guère être structurés. Lorsque le dialogue est introduit dans le texte, l'importance de la séquence dialogale dans la linguistique textuelle consiste à transmettre vivement « l'action » aux lecteurs à travers le texte. Cet article a dédié une partie à l'application réelle au texte. Etant donné que la séquence dialogale ne produit guère encore étudiée, si l'on recherche la relation entre cette séquence et les autres séquences, cela contribue à élargir l'extension de la théorie des séquences.

Key Words : Dialogue, Séquence dialogale, Séquence transactionnelle, Séquence phatique, théorie des séquences, Jean-Michel Adam

투고일 : 2014.08.15 / 심사일 : 2014.09.01 / 심사완료일 : 2014.09.12